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3차)

개최일시	2020. 4. 24(금) 16:00~19:40	회의장소	대학원별관 204호
참석자 (13명)	강동범(교무처장), 김민서(사범대학 공동대표), 김영석(관리처장), 김우정(대학원 학생회장), 김호민(학부 부총학생회장), 백옥경(학생처장), 오희아(학부 총학생회장), 유세경(기획처장), 이상은(삼일회계법인), 임지혜(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 최수인(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 최혜련(예산팀장), 홍기석(총무처장)		
불참자 (0명)			
안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회계(교비, 부속병원) 2019학년도 결산(안) 심의 및 의결 2. 일반대학원 후기 신설 협동과정 등록금 책정 		
내용	<p>■ 개회</p> <p>위원장(교무처장)이 학생위원 1인이 수업 때문에 늦게 참석할 것을 알리며, 총 13명의 위원 중 12명이 참석하여 회의 개최 과반수 참석의 요건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제3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라 함)를 개최하다.</p> <p>■ 회의내용</p> <p>1. 등록금 환불 관련 학생 요구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회의를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함을 말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회의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안전문제 말고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질의하다. - 위원장이 현재 회의장 크기는 코로나 예방을 위하여 위원간의 거리를 충분하게 보장할 수 없으며, 외부위원이 회의 이후 다른 일정이 있음을 덧붙이다. 첫 번째 이유는 안전 문제이며, 두 번째 이유는 이번 등심위 안건이 결산(안) 심의 의결과 신설된 협동과정 2개의 등록금 책정으로 복잡하지 않아 회의시간을 최소화하고자 한 것임을 설명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교 회의에서도 시간을 제한하는 일이 있는지 질의하다. - 위원장이 교무회의의 경우에도 2시간을 넘지 않으려 하며 불가 		

피하게 넘어간다 해도 3시간을 넘기지 않는다고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중앙운영위원회 학생면담이나 평의원회도 시간제한을 두지 않고 회의를 진행하는데, 총학생회가 재난 시국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등심위 회의 시간에 제한을 둔 것과 차기 등심위에서 학생 요구사항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했었는데, 학생위원 5인의 안전 상정이 기각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다.

- 위원장이 등심위 구조에 대해 논의하자는 것인지 질의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구조뿐만 아니라 등록금 환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고 답하다. 이 문제는 교육부에서 말했듯이 1차적으로 총장이 권한을 가지고 등심위에서 심의 및 의결을 해야 하는데,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학교도 학생들과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하다.

- 위원장이 교육부에서 지침이 온 것이 있는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없다고 답하며, 학생들이 다른 회의에서도 등록금 환원에 대해 많은 의사를 전달했던 걸로 알고 있다고 말하다. 우선 오늘 회의의 안전을 처리한 후에 학생들의 의견을 추가로 전달하는 시간을 갖자고 제안하다. 비록 안전상의 이유로 회의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하고자 하나 논의가 필요할 경우 시간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이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해당 내용 관련하여 안전상정을 요청하였으나 위원장이 반려하였으며, 학생들은 등록금 환원에 대해 계속해서 요구해 왔음을 말하다.

- 기획처장이 2월에 코로나가 발발한 당시엔 중국인 유학생 관련 문제가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했으며 비대위에서는 관련 대책을 세우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2주간 개학을 연기하고 온라인 개학을 시행했다고 말하다. 등록금 환원 관련하여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으나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하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등록금 환원 관련 논의 결과가 나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나 학생 위원들이 논의하고자 하면 회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논의해보자고 제안하다.

- 위원장이 총학생회는 학교가 등록금 환원에 대해 왜 답변이 없냐고 말하는데, 등록금 환원은 여러 문제가 얽혀있는 사항이라고 말하며, 검토는 해볼 수 있겠지만 우리의 권한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하다. 학생위원들이 교육부에서 지시했다는 것이 확실한 것인지 질의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교육부와 어제 면담을 진행했으며, 교육부에서 대교협과 만나고자 하였는데 대교협에서 거절하였으며, 기획처장 협의회도 교육부가 관련 논의를 진행하자고 했는데 반대했다고 전하다.

- 기획처장이 사실과 다른 것 같다고 말하며, 기획처장 협의회는 작년 12월 제주도에서 개최한 후 지금까지 없었음을 말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교육부의 면담 대상자가 답한 것이라고 말하며, 학생위원들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학생처로 부터 환원이 어려우며, 장학금을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당장 등록금 환원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관련하여 논의를 시작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다. 또한 지난 2월부터 진행된 비대위에도 학생을 포함해 주길 요청했다고 말하다.

- 위원장이 오늘의 안건에 관련된 것만 언급해 주길 요청하다.

- 기획처장이 12월 이후 기획처장 협의회가 없었음을 명확히 하고, 어떤 지침도 교육부로부터 오지 않았다고 밝히다. 비대위의 경우 당시 상황이 매우 급박하였으며 학생들이 2월부터 등록금 환원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음을 설명하고자 한 말이라고 답하다.

- 사범대학 공동대표가 1학기 전면 온라인 개강이 결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 전엔 2주씩 연장했었는데 그 당시에 85.9% 정도 환원을 요구했었음을 말하다. 지금은 99.5%가 동의하며 2,700명의 학생이 연명을 하였음을 말하며 등록금 환원 요구는 전부터 있었음을 말하다.

- 위원장이 환원이라는 말이 등록금의 일부를 돌려달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학교는 등록금 의존율이 다른 학교에 비해 낮지 않으며, 교육비 환원율과 재정상황 등을 고려한다면 환원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하다. 따라서 장학금 형태로 학생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하다. 학생위원의 요지가 등록금 환원을 결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인지 질의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위원장의 말이 맞음을 말하며, 교육부에 따르면 등심위에서 그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하다.

- 위원장이 교육부에서 보도 자료를 내보냈다하더라도 학교는 공문으로 받은 것이 없음을 말하다. 보도 자료만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으며 결정된 사항이라면 공문으로 올 것임을 말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교육부와 직접 면담을 진행하였는데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한 것인지 질의하다.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답하며, 공식적인 문서를 통하여 결정사항을 전달 받아야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음을 말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등록금 관련 의결 기구는 등심위이기 때문에 등록금 환원에 대해 충실한 논의를 할 것 인지 확인하다.

- 위원장이 충실한 논의에 대한 뜻을 질의하자 학부 총학생회장이 지난 등심위 합의사항으로 학생 및 예산 요구안에 대해 논의하자 하였는데 추후로 미뤄졌음을 말하며, 등록금 환원을 원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충분히 논의하자는 뜻이라고 답하다.

- 학생처장이 위원장의 질문은 이 자리에서 의결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충분히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라고 말하며, 등록금 환원은 이 자리에서 결정하지 못하는 사항임을 말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이 자리에서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자 학생처장이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 없음을 말한다. 이 자리를 통해서 학생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내부적으로 전파할 시간이 필요함을 말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등심위는 등록금을 책정하는 기구이므로 등록금 환원 관련하여 논의하고 의결 자리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합의를 요청하다.

- 위원장이 등록금 환원은 기 책정한 등록금에 대해 일정 금액을 환불하는 것에 대한 문제이지 등록금을 책정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등록금은 이미 1월에 책정되었고 학생들은 모두 납부하였으며 납부된 등록금에 대해 환불을 진행하는 것은 등심위에서 결정할 사항인지 행정적인 것인지 판단이 어려움을 말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위원장이 해당 내용을 모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한다.

- 위원장은 본인의 판단으로는 등심위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지만, 교육부에서 관련 공문이 온다면 성실히 따를 것이기에 판단을 보류한 것이라고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교육부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했으며, 등심위가 아니면 어느 기구에서 하는지 질의하다.

- 위원장이 등록금 환불을 어디서 결정하는지 검토해야 하며, 등록금 환원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나 이 회의에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임을 말한다.

- 사범대학 공동대표가 이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타 대학에서는 2020 예산을 재심의 했음을 말하며, 1월에 등록금 책정했을 때의 상황과 지금 상황이 많이 다르니 코로나로 변동되는 많은 상황을 반영하여 2020 예산을 다시 편성하고 등록금을 다시 책정하여 반환하자는 것임을 말한다.

- 기획처장이 학생위원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느 예산이 절약되고, 지금까지 어떤 것들을 집행했는지가 궁금한 것이면 질문 시에 충분히 설명해 줄 것임을 말한다. 오늘의 안건을 먼저 의결한 후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앞으로의 예산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의응답 시간을 갖자고 제안한다.

- 위원장은 학생위원들의 의견은 등록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하여 먼저 논의하자고 하는 것인지 질의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그렇기도 하며 환원 관련 논의를 상정하지 않겠다고 답변 받았는데, 여기서 하자는 것은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인지 질의한다.

- 학생처장이 안건은 의결해야 함을 말한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심의는 가능하다고 말하며 구체적인 안이 없어서 의결을 못한다면 심의에 대해 안건으로 상정하기를 요청한다.

- 기획처장이 심의를 위해서는 수입과 지출이 확정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자료 없이 심의를 하자는 것은 불가능함을 말하며 학생위원들이 조사 결과는 안건 의결 후 공유하는 시간을 갖자고 제안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타 대학처럼 자료를 준비하여 2020학년도 예산을 재 심의하는 등심위를 추가로 개최하는 것을 요청한다.

- 예산팀장이 추경 예산을 심의하는 등심위는 당연히 개최될 예정이라고 말하며 추경예산은 한 해의 등록금 수입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11월은 되어야 등록금 수입이 예측가능 하다고 말한다. 수입총액에서 지출총액을 제하고 남은 것에 대한 것을 돌려주는 것이 환원인데, 등록금 회계에서

는 감가상각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미 자금이 부족한 상황임을 말한다. 더불어 1학기는 휴학생도 늘어나고 모든 기관의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으로, 수입 변동 쪽 대비 지출 변동 쪽을 보면 등록금 회계는 남는 것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어려움은 있기에 그런 것을 어떻게 지원해 줄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한다.

- 사범대학 공동대표가 4월에 2020년 등록금 산정근거가 공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소비자 물가상승률 등 등록금 산정근거의 지표들은 등록금을 인상의 필요성을 말하지만 학교는 동결을 유지하고 있음을 답하다.

- 위원장이 등록금 환원에 대해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은 절차가 충분치 않았음을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관련하여 많은 의견을 전달하고자 함은 이해하니 안건 의결 후에 환원과 관련된 학생들의 주장과 근거, 학교 생각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자고 제안하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심의자료가 충분히 만들어지면 등심위 안건에 상정하는 것에 합의하면 넘어가겠다고 답하다.

- 예산팀장이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당연히 등심위는 개최될 것임을 말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타 대학에서는 최근 추경예산이 아닌 2020 예산을 재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며, 추경예산의 경우 수입예산이 확정되어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되나, 타 대학처럼 2020 예산을 재심의 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물어본 것이라고 답하다.

- 예산팀장이 타 대학이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면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겠다고 답하며, 비 정례적인 추경예산의 경우 당초예산과의 차이가 너무 커서 부득이하게 변경시켜야할 때 하는데 우리학교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기에 수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다시 편성할 계획이 없음을 말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2019 예산 대비 결산 때 관리운영비, 시설유지비, 실험실습비의 집행률이 약 97%인데 차기자금이월금이 증가하였는데 이것이 미 집행된 예산이 모두 이월된 것이 아닌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차기자금이월금은 예금이자에서 발생한 선급법인세

와 국고 및 기부금의 이월, 자체수입사업의 이월금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하며, 자체수입사업의 이월금의 경우 기자재 등을 구입하기 위해 몇 해연도의 수익을 모으는 경우가 있다고 답하다. 등록금 회계의 이월금은 거의 없기에 이월금 중 본부가 가용할 수 있는 이월금은 없다고 말하며, 본부에서는 수입 대비 지출 예산잔액이 남으면 목적사업 기금인출이 줄어드는 것이지 이월금이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라고 답하다.

- 학생들의 등록금은 시설관리비 같은 것에 쓰이는데 그 예산이 남으면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 아닌지 질의하다.

- 위원장이 지금 결산(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생 등록금과 관련된 부분이라 말하다.

- 위원장이 지금 논의내용이 섞여있는 상태이므로, 본 회의 안건인 결산(안)에 대해 먼저 논의하고 환원관련 논의를 하자고 제안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환원 관련 논의를 회의시간 2시간이 넘어도 진행하고, 의문점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추가 등심위를 개최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일단 2019년 결산(안)에 대한 질문을 받겠다고 하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안건 관련 질의사항이 있다고 말하며, 처음 상정된 안건은 2019학년도 학교회계 결산(안) 및 일반대학원 후기 신설협동과정 등록금 책정이었는데, 이것이 분리 상정된 것인지 중간에 소통문제가 있었던 건지 확인하다.

- 학생처장이 표기는 그렇게 되어도 의결할 때는 나눠서 하는 것임을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안건을 받았을 때 2019학년도 학교회계 결산(안) 및 일반대학원 후기 신설협동과정 등록금 책정이라고 되어있어서 분리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효율적으로 같이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하다.

- 위원장이 1번과 2번 안건은 독립된 것임을 말하고, 총무처장도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등심위 메일은 누가 주는 것인지 질의하며, 분리해달라고 했을 때 안 된다고 했는데, 회의 안건이 분리되어 있어 당황스럽다고 말하다.

- 예산팀장이 등심위 메일은 예산팀에서 의견을 수합하여 보내고 있음을 말하고, 기획처장이 커뮤니케이션에 오해가 있던 것 같다고 말하며, 이번 등심위에서 두 개의 안건을 상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덧붙인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의문이 해소되지 않아도 추가 등심위가 개최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인지 질의하다.

- 학생처장이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의견을 주었으면 한다고 말한다.

- 사범대학 공동대표가 추가 개최에 대한 약속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2차 등심위 때도 구조관련 안건 상정을 요청하면 개최하겠다고 합의하였는데 개최가 안 되었기 때문에 회의 개최를 약속받고 싶은 것이라고 말한다.

- 기획처장이 원래 결산 등심위 전에 개최하고자 하였는데, 학교에서 제안한 일자에 대해 회신이 없었기에 결산 등심위를 먼저 하게 되었다고 답하다. 구조 관련한 논의는 지속적인 내용이니 후에 요청이 있으면 관련 등심위는 개최할 것임을 덧붙인다.

- 사범대학 공동대표가 그래서 오늘 회의에서 미리 구조관련 논의를 진행하자 하였는데 안건상정이 안된다고 답변 받았다고 말한다.

- 학생처장이 구조 관련 논의는 따로 하는 것으로 합의했었다고 말하며, 오늘은 안건을 심의한 후 등록금 환원에 대한 의견을 듣는 걸로 진행하는 것이 어떠한지 제안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첫 번째로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으면 자료를 준비하여 등심위를 추가 개최하는 것, 두 번째로 5월 중 구조 관련 사항을 논의하는 등심위를 하는 것에 대해 합의를 제안하다.

- 총무처장이 논의를 시작도 하지 않은 채로 다음 회의를 미리 정하는 것 보단 안건 심의한 후 등록금 환원을 얘기를 한 후 결정하는 것이 어떻지 질의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위의 합의를 다시 제안하자 기획처장이 구조 관련 등심위는 원래 하고자 하였으니 개최에 동의하나 등록금 관련 문제는 교육부의 방침도 정해져야 하며, 자료도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도 답하다. 때문에 관련 논의는 논의시점을 확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5월 중에 구조 관련 등심위를 하는 것엔 동의하는지 확인하다.

- 위원장이 구조 관련 등심위는 지난번에 합의하였으니 5월 중에 개최하고자 하고, 등록금 환원 관련 문제는 예측 가능한 근거 자료가 있으면 그 때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고 말한다.

- 사범대학 공동대표가 등심위 내규에 따르면 총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등심위를 소집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총장 및 대학평의원회에서는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논의에 교육부의 지침이 꼭 필요한 것인지 질의하다.

- 학생처장이 등록금 환원은 우리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며, 현재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등록금 환원 논의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답하다.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 위원 입장함.)

- 학부 총학생회장이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에 대해서는 대학 자율적인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학교가 판단해서 논의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교육부 얘기를 하는 것은 학교가 회피하는 것이 아닌지 질의하다.

- 위원장이 학생위원들이 교육부가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하는데, 학교는 공문을 받은 적이 없으며 이러한 사항은 우리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추이를 보고 논의하고자 함을 말한다. 지금 시점에 등록금 환원이 누구의 권한인지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 오늘 회의의 안건을 처리한 후 건설적인 논의를 하는 편이 낫다고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시하는 것은 교육부 지침이 없어도 등심위에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함이고, 오늘 논의를 해보고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으면 자료를 준비하여 추가 등심위를 하는 것에 합의를 요청하다. 5월 중 구조 관련 등심위 개최는 동의한다고 언급하다.

- 총무처장이 학교에서 교육부 지침을 언급하는 것은 교육부의 재정지원을 예상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학교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서는 재정지원 없이 학교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임을 덧붙인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교육부에서 추경예산을 요청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 거절하였고, 대교협외 대학혁신지원사업 용도 제한 철폐요청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 이 부분에 대해 학교에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것이면 자료를 제공해줘야 납득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에 추가 등심위 개최를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인다.

- 기획처장이 그러한 자료가 오늘 심의할 결산 자료임을 말하며, 대학이 등록금 외의 재원으로 돈을 얼마나 쓰고 있으며, 기금을 얼마나 인출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고 말한다. 결산 자료를 통해 우리 학교가 등록금 수입의 2배가 되는 지출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답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2019 결산자료는 2019학년도 집행내역 이므로 2020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 등심위 개최를 원한다고 말한다.

- 기획처장이 학교의 예산 집행은 매년 비슷한 내역과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산(안)을 심의하면서 어떤 부분이 변동될지 보며 논의하는 것이 어떻지 제안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상반기가 지난 후 방학에 등심위를 개최하는 것을 요구한다.

- 학생처장이 자료를 보는 것이 꼭 등심위를 개최해야 하는 것인지 질의하다. 기획처장이 자료를 보여주는 것은 가능하나 예산팀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절차가 필요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됨을 덧붙이며 봄학기가 7월 초쯤 마무리 될 것이라고 답한다.

- 예산팀장이 상반기는 8월까지라고 정정하며, 상반기 자료는 8월 이후에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인다.

- 위원장이 학부 총학생회장이 등록금 환원 관련 논의를 등심위에서 하게 될 것이냐가 궁금하며, 학교에서 등록금 환원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인지 질의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권한이 있는 총장을 비롯하여 처장단과 논의하고 싶은데 학생들이 만나기 어려우니 상반기까지 집행된 자료를 가지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여 등록금 환원 관련 논의를 하고 싶음을 말한다.

- 기획처장이 등록금 환원 관련 논의를 하려면 1학기까지의 예산 집행내역과 교육부의 방침 등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1학기 수입

이 완료되는 시점을 질의하다.

- 총무처장이 유틸리비 비용을 포함한 학교비용은 고정비가 대부분이기에 해마다 거의 차이가 없음을 말하며 이에 비해 임대료 수입을 비롯한 수입은 많이 줄었음을 덧붙인다.

- 위원장이 논의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니 안건 심의를 진행하자고 말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구조 관련 논의 등심위는 5월 중에 개최하고, 상반기 자료는 8월 말에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2020학년도 상반기가 언제까지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요청하는 자료가 단시일 내에 만들어질 수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제공시기는 검토해봐야 한다고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코로나 관련 예산 집행 자료가 학생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 되어야 등록금 환원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납득할 만한 근거가 될 것임을 말하며 8월 말에 7월까지 집행된 자료를 볼 수 있을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8, 9월에 시점을 끊어서 자료를 공유해주길 원하는 것인지 질의하고, 위원장이 그때까지 계수조정이 끝날 수 없으니 대략적인 자료를 원하는 것 같다고 덧붙인다.

- 예산팀장이 8월 집행내역까지 포함하고 싶으나 정 안되면 7월로 끊어서라도 8월 말 ~ 9월 초에 준비해보겠다고 답하다.

- 위원장이 5월 중에 코로나가 괜찮은 상황이면 개최하고, 구체적 예산 자료는 가능한 시기에 답변하는 것으로 정리하다. 이미 회의시간이 1시간이 훌쩍 넘었음을 말하며 2019학년도 결산(안) 심의를 진행하다.

• 합의사항

- 5월 중 구조관련 등심위 개최

2. 논의사항

가. 학교회계 결산(안) 심의 및 의결

1) 교비회계 결산(안) 심의 및 의결

- 예산팀장이 2019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을 각 계정별로 예산 대비 증감내역을 덧붙여 설명하고, 위원장이 위원들에게 결산(안)에 대한 질문을 요청하다.

- 대학원 학생회장이 연구학생경비의 장학금 설명에 조교 장학금이 포함된 것인지 확인하고 위 장학금과 인건비 부분의 조교인건비의 차이를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조교 장학금은 학생 조교에 대한 장학금이고 인건비계정으로 나가는 조교 인건비는 T.A로 학교와 근로계약을 맺고 지급되는 인건비임을 답하다.

- 대학원 학생회장이 인건비의 조교는 대학원생이 아닌지 질의하자 예산팀장이 아니라고 답하다.

- 대학원 학생회장이 장학금 감소 원인에 학교의 장학금 예산 대비 신청인원이 채워지지 않아 장학금 집행액이 감소되는 경우가 있는지 질의하다.

- 학생처장이 대학원 장학금 감소 원인 중 대학원 총원율이 낮아진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답하며, 학생들이 지원을 하지 않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신입생 장학금의 경우가 그러한 예시가 될 것이라고 덧붙인다.

- 기획처장이 2020년에는 장학금 대상자를 늘리고자 신입생 장학금 지원 대상에 타 학부 출신 학생도 포함하였으며, 대학원생 생활비 장학금 등을 추가 지원하고자 하여 이번 결산에는 대학원 장학금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다고 답하다.

- 학생처장이 대학원 학생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장학금을 내년에 개편하여 타 학부 출신 대학원생 지원도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한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병원 전입금이 명세서와 보고서에 금액 차이가 있음을 질의하다. 이어 부속병원전입금이 임상교수 인건비인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병원 전입금은 병원에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학교로 전출하는 돈인데, 명세서와 보고서의 단위가 달라서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하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부속병원 전입금 중 학생 연구 활동에 쓰이는 것이 얼마인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만약 병원 전입금이 아예 없었더라면 그만큼 다른 지출을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학교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학교 예산은 모두 연구와 교육을 위해 집행됨을 답하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전체 다 집행되었는지 질의하고, 예산팀장이 교비회계로 전입되었으며, 수입과 지출예산 편성하여 이월 없이 모두 집행했음을 답하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국가장학금 인센티브 관련하여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국가에서 연도 말에 국가장학금 10%를 인센티브를 주었으나 작년에는 모든 대학에 대해 미 집행하였기에 수입이 감소한 것이라고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교육부에 질의했는데 교육부에서는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고 언급하다.

- 학생처장이 국가장학금은 교육부 산하기관인 한국장학재단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는지는 장학재단의 결정일 것 같다고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관리운영비 계정이 예산액대비 결산액이 줄었음을 지적하며, 올해도 비슷하게 집행되는 것이면 코로나로 관리운영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차액은 어디로 집행될 것인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등록금회계의 예산이 남게 된다면 추경예산 편성 시에는 당초 자금이 부족하여 편성하지 못했던 감가상각 반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답하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잔액 전액을 감가상각을 할 계획인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학교의 재정을 보는 예산팀장의 의견임을 밝히며, 2018학년도부터 등록금회계의 감가상각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재정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노후건물이 많아 보수를 위해 감가상각을 해야 한다 했는데 어떤 건물이 있는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현재 논의하는 내용이 결산(안) 심의와 관련이 없음

을 말하고, 추후 상반기 집행에 대한 자료가 나오면 논의하자고 말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등록금 환원이 논의에 포함되어 있으며, 2019년 결산이 400억인데 2020예산이 425억이면, 25억의 차액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실습실 등은 운영하지 않으니 관리운영비도 줄어줄 것 같은데 등록금 수입에서 남는 것이 왜 없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 기획처장이 상반기 자료를 보고 추후에 논의하자고 답하고 예산팀장이 지출 측면만 볼 수 없기에 수입이 확정되면 같이 보고 논의하자고 말한다.

- 총무처장이 2018년 대비 2019년 결산액을 보면 관리운영비가 증가되었음을 설명하며, 올해도 인건비 인상 등으로 늘어날 수 있음을 덧붙인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생들은 지금 시점에 관리운영비가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학교가 그 남는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지 모르고 있음을 말하며, 2019 예산 대비 2019 결산에 줄어든 이유가 시설용역비 감소라고 하였는데, 2020 예산에서는 왜 시설용역비를 증액하여 편성하였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2020 예산 편성 시에는 2019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며, 결산 분석을 하면서 각 부서에 예산잔액을 최소화 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예산과 결산의 차액이 있을지 없을지는 결산 이후 알 수 있으나, 행사 감소와 같은 것은 2020년의 경우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예산이 얼마나 남을지는 지출뿐만 아니라 수입도 같이 고려해야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행사의 경우는 취소보다 하반기로 연기하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의 상황을 봐야 집행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하다.

- 학생처장이 신입생 환영회도 연기하여 방학 중에 할 계획으로 사실상 행사가 얼마만큼 감소될지 지금은 예측하기 어려움을 말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지출만 보고 논의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해하나 휴학 및 등록반환 접수입이 증가할 것이고 시설 용역비 등의 차액이 발생한다고 하면 학생들은 대면 강의보다 수업의 질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등

등록금 수입은 예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 예산팀장이 잡수입의 경우 환불기간에 따라 등록금의 일부만 반환할 경우 발생하는 잡수입이라고 말하며, 학생들이 휴학을 많이 하면 등록금 수입은 큰 폭으로 줄고 상대적으로 잡수입은 소폭 증가할 수 있다고 답한다. 등록금 수입이 줄어드는 폭과 잡수입이 늘어나는 폭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 등록금 수입이 줄어들어도 잡수입이 늘어서 보완되는 것이 아님을 설명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등록금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여 남은 것이 없다고 예측하는 것인지 질의하다.

- 학생처장이 등록금이 줄어 등록금 수입이 줄어드는 것에 비해 강좌수 등이 줄어들진 않아 인건비나 고정 비용을 그대로 집행하면 학교에서는 수입과 지출의 격차가 부정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음을 말한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명세서 집행율의 집행기간을 질의하고 예산팀장이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임을 답한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기금은 기금운용심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원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해당 위원회는 자금팀이 관리하는 것으로, 해당 위원회에 대한 질문은 학생처를 통해 자금팀으로 요청하길 답한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는 법인전입금이 예산대비 줄어든 것을 지적하며, 그 이유와 확충 노력에 대해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법인전입금은 사학연금의 법인부담금이 줄어들었기에 예산대비 줄었음을 답하며, 법인에서는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고민하고 있으며 수익 증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한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법인에서 항상 노력하고 있다고 답하지만 실질적으로 전입금이 증가하지 않음에 유감을 표하자 학생처장이 법인에서도 학생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알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사업을 짧은 시간에 시작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을 답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예비비 계정이 예산과 결산 차이가 나는데, 2020년 예산에 예비비를 많이 편성한 이유를 질문하다.

	<p>- 예산팀장이 당초 예산편성시 부서의 사업비 요청액을 최소한 반영하고, 예비비로 일부 편성하였음을 답하다. 또한 예산잔액이 남지 않도록 반드시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말하다.</p> <p>- 학부 총학생회장이 예비비라는 것이 각 부서는 지출 예산을 보수적으로 잡고 추가되는 부분을 예비비로 쓰는 것인지 질의하고, 예산팀장이 예를 들어 시설용역비의 인상율을 최소한으로 반영하고 추가분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 할 수 있음을 답하다.</p> <p>-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우수인력확충기금의 정확한 성격을 질의하고 예산팀장과 기획처장이 학교 인프라 중 가장 중요한 우수교원 유치와 유지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기금이라고 답하다.</p> <p>-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가 이 부분이 임의기금으로 이관된 것인지 묻고 차액에 대해 질의하자 예산팀장이 예금이자 부분이라고 답하다.</p> <p>-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이화 오투기 어린이집과 학관 리모델링 관련하여 관리처장에게 진행상황을 질의하다.</p> <p>- 위원장이 해당 내용은 등심위에서 질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한다.</p> <p>-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이는 결산과 별개의 사항이 아니며,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가 관련하여 메일로 질의하였으나 답변이 없었다고 덧붙인다.</p> <p>- 관리처장이 학생처를 통하여 회신하였는데 아직 전달이 안되었으면 다시 확인해보겠다고 답하다.</p> <p>- 학부 총학생회장이 대학평의회에서 우수인력확충기금이 신규 교원 충원을 위한 것이냐는 직원 평의원의 질문이 있었는데, 이는 기존 교원이 아닌 앞으로 충원되는 교원을 고려한 것인지 질문하다.</p> <p>- 예산팀장이 신규 충원과 기존 우수교원의 유지를 위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음을 답하다. 교육을 위한 인프라 중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교원이므로 우수교원 확충을 위해 기금을 인출 편성하였음을 답하다.</p> <p>-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박물관 관리비에 대해 질의하고, 예산팀장이 박물관 관리비는 학교에 있는 박물관들의 전시, 유물관리, 향온향습 등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라고 답하다.</p>
--	--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가 장학기부금이 소폭 증가하였는데 이 부분이 올해 집행되었는지, 적립되었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언급된 장학기부금은 단위기관의 장학금일 것이며, 항상 그해 들어온 것이 반드시 다 집행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답하다.

- 학생처장이 기부금이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고, 의도에 따라 그해 집행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기부금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다고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결산 계정별 명세서에서 집행률이 낮은 계정을 지적하며, 셔틀 용역비도 운행이 중단되면 예산잔액이 발생하는 것인지 질문하다.

- 예산팀장이 셔틀 용역비는 계약에 의해서 집행되는 부분은 거의 변동이 없고 운행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 미집행 되는 금액은 인건비 일부임을 말하다.

- 위원장이 회의를 지연되고 있음을 말하며 결산(안)에 대해서만 질의응답을 할 것을 요청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교가 돈이 없어 등록금 환원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질문으로 추가 질문을 하지 못하고 의문점을 갖고 돌아가면 비민주적인 것이라고 언급하다.

- 위원장이 결산(안) 심의 및 의결이 오늘의 안건이기 때문에 안건과 관련이 없다고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결산(안)을 지금 보았기 때문에 2020 예산과 비교하여 궁금한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자, 위원장이 2020 예산에 대한 논의는 2019 결산(안) 심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2020 예산이 그대로 집행될 것이라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다.

- 기획처장이 예산을 편성한 후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그에 대한 결산 작업이 이루어짐을 설명하다. 학생위원들이 그 전에 보고 싶다 하였으니 추후 상반기가 마무리 되고 수입과 지출의 변동을 살펴보자고 제안하다.

- 학생처장이 학생위원들은 난방비나 전기수도료가 크게 절약될

것이라 예상하지만 건물별로 행정실, 연구실 등이 있어 건물의 난방을 가동시키기 때문에 유틸리티 비용이 생각만큼 크게 절감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학생위원들이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이해하나 실제로 크게 절감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다.

- 위원장이 상반기 자료가 나온 후 살펴보자 하였으니 지금 결산(안)을 보고 2020년 예산의 변동을 예측하는 것은 결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추상적인 논의임을 말하며, 신속한 회의 진행을 요청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교에 정보공개 청구 시 예정대로 집행될 것이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상세한 자료가 없으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한다. 학생들이 학교가 예산대로 집행할 예정이라고 해도 99.5%가 반환을 요구하기에 결산(안)을 보고 궁금한 부분을 질문해도 되는 것이 아닌지 질의하다.

- 위원장이 결산(안) 자체에 대한 질문은 괜찮으나 이 자리에서 2020년 예산의 방향에 대해 질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답하다.

- 기획처장이 위에 언급했듯이 상반기까지의 집행을 보아야 자세한 예산 집행의 증감을 볼 수 있기에, 추후에 논의하자고 한 것이라고 말한다.

- 학생처장이 학생들은 예측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여러 변수가 많은 현재 상황에서 예측이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한다.

- 사범대학 공동대표가 특정목적기금을 임의기금으로 이관하여 교원 인건비를 지원한 것을 말하며, 특정목적기금으로 이관하는 기준이 있는지, 관련하여 기금운용심의회에서 결정하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원금보존기금인출 절차를 질문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대학평의원회 자문, 기금운용심의회, 등심위 심의 및 의결, 이사회 확정 절차를 거침을 설명하다.

- 사범대학 공동대표가 기금운용심의회 자료를 볼 수 있는지 질의 하자 예산팀장이 원금보존기금인출 관련한 것을 묻는 것이라면 원금보존기금은 원래의 목적에 맞으면 절차에 맞춰 인출할 수 있다고 하여 해당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지금 등심위의 인출(안)은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친 안건임을 말한다.

- 사범대학 공동대표가 등심위에서 인출 금액의 상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지 질의하자 예산팀장이 해당 인출은 교원 인건비 지급이 목적이기 때문에 개별 인건비 자료는 관할 자료가 아님을 말한다.

- 위원장이 2019년 교비회계 결산(안) 의결을 제안하다. 학부 총학생회장, 학부 부총학생회장,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 사범대학 공동대표,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 대학원 학생회장 총 6인이 반대하고, 위원장, 기획처장, 예산팀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관리처장, 외부전문가위원 총 7인이 찬성하여 교비회계의 2019학년도 결산(안)을 의결하다.

• 의결사항

- 2019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

2) 부속병원회계 결산(안) 심의 및 의결

- 부속병원의 전략기획본부장, 목동병원 재무팀장, 서울병원 재무팀장이 입장하다. 목동병원과 서울병원의 각 계정별 결산 내역을 증감내역을 덧붙여 설명하다.

- 위원장이 부속병원 회계 결산(안)에 대한 질문을 요청하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목동병원의 상급병원 지정가능성에 질의하다.

- 전략기획본부장이 상급병원 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증환자비율임을 말하며, 목동병원은 가산점을 받는 비율을 이미 상회하고 있음을 말한다. 다른 병원과의 경쟁이 있어 확신할 수는 없으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하였기에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고 답하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상급병원으로 지정되면 수입이 달라지는지 질의하자 전략기획본부장이 중증종합병원이 되면 수술비 등에 가산이 붙어 수입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하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목동병원의 재무상태가 유동부채에 비해 자산이 적은 편인데 이것이 안정적인지 질의하다.

- 목동병원 재무팀장이 일반적으로 자산보다 부채가 작은 것이 건전하므로, 수익구조가 좋다고 볼 수는 없으나 과거 사태로 인해 대금지급이 지연된 부분이 있어 부채가 많은 것이라고 답하다. 과거에 비하면 안 좋긴 하나 전체적으로 나쁜 상태는 아니라고 답하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현금성 예금에 비해 인건비 지출규모가 큰데 이것이 안정적인 구조인지 질의하다.

- 목동병원 재무팀장이 예금은 자산의 부분이고 인건비는 비용의 부분이기에 서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고 답하다. 인건비는 수입에 비례하여 나가는 것이며, 예금은 그것을 다 지불하고 남은 자산임을 설명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목동병원의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질문하다.

- 전략기획본부장이 목동병원은 중증종합병원에 재진입하고, 교육수련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운영할 것이며 서울병원은 뇌질환, 외국인, 이식 등에 특화하여 운영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하다. 두 병원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전략을 짜고 있다고 답하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부채로 편성되는 이유를 질의하고, 목동병원 재무팀장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용도가 시설투자, 교비, 학교 법인을 위한 투자 등임을 설명하고 나중을 위해 충당하는 돈이라고 설명하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목동병원 회계에만 편성된 이유를 질의하자 목동병원 재무팀장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수익이 나와 적립할 수 있는데 서울병원이 개원한지 얼마 되지 않아 지금은 적립이 어려움을 말하다.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가 퇴직충당금의 교직원 퇴직수당은 비슷한 의미로 의료원에서 퇴직할 사람을 위해 충당하는 돈인지 확인하고, 목동병원 재무팀장이 그렇다고 답하다. 사학기관은 일반적으로 퇴직금이 없으나 비정규직 등 기관에서 부담하는 퇴직금에 대한 충당임을 덧붙인다.

- 위원장은 부속병원회계 결산(안)에 대한 질문이 없음을 확인하고 의결을 제안하다. 부속병원 관계자 3인은 퇴장하다.

- 위원장이 2019년 부속병원회계 결산(안) 의결을 제안하다.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 사범대학 공동대표,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 총 3인이 반대하고, 학부 총학생회장, 학부 부총학생회장, 대학원 학생회장, 위원장, 기획처장, 예산팀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관리처장, 외부전문가위원 총 10인이 찬성하여 부속병원회계의 2019학년도 결산(안)을 의결하다.

• 의결사항

- 2019학년도 부속병원회계 결산(안)

나. 일반대학원 후기 신설 협동과정 등록금 책정

- 위원장이 일반대학원 후기 신설 협동과정 등록금 책정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고, 예산팀장이 일반대학원 후기 신설협동과정 2개의 등록금 책정(안)을 보고하다.

- 위원장이 등록금 책정(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며, 인문사회계열의 등록금이 동일한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본교는 등록계열로 책정하고 있음을 말하며, 등록계열이 인문사회인 것은 동일한 등록금을 적용하고 있음을 말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협동과정이 무엇인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협동과정은 시대에 따라 학문이 융합되고, 산업수요도 변화하는데 그때마다 새로운 학과나 전공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 교수님들이 모여 새로운 과정을 만드는 것이라고 답하다.

- 교무처장이 2개 이상의 학과가 모여, 별도의 입학정원을 가지며 과정이 만들어 지는 것이라고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기존 교수님이 가르치는 것인지 질의하고 기획처장이 관련학과 교수님들이 겸직으로 교수하는 것이라고 답하다.

- 위원장이 일반대학원 후기 신설 협동과정 등록금 책정(안) 의결을 제안하다. 위원장, 기획처장, 예산팀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관리처장, 외부전문가위원, 대학원 학생회장 총 8인이 찬성하고, 학부 총학생회장, 학부 부총학생회장,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 사범대학 공동대표,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 총 5인이 기권하여 일반대학원 후기 신설 협동과정의 등록금 책정(안)을 의결하다.

• 의결사항

- 일반대학원 후기 신설 협동과정 등록금 책정

3. 등록금 환불 관련 학생 의견 공유

- 3차 등심위 안건을 모두 의결한 후 개인 일정으로 인해 외부위원이 퇴장하다.

- 5분간 정회 후 등록금 환원 관련 학생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기로 하다.

- 위원장이 회의를 재개하며, 회의록 날인 일정 관련하여 예산팀장에게 안내를 요청하다.

- 예산팀장이 이번 회의록 작성일정을 설명하며 휴일이 많음을 언급하고 제시된 일정에 모두 협조해 주길 요청하다.

- 위원장이 등록금 환원 관련하여 학생위원의 의견을 질의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이화인의 99.5%가 등록금 환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등록금 관련 사안은 총장의 권한이므로 총장협의회를 요청했다고 말한다. 힘내라 이화 장학금 관련하여서도 학생처에서 등록금 환원은 어렵고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도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덧붙인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모금을 통한 장학금 지급방식에 대해 93%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모든 학생들이 피해를 받고 있으므로 이는 소득분위와 관계가 없음을 주장하다. 학생들은 해당 장학금은 전체 학생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한다.

- 학생처장이 오해가 있었음을 말하며, 코로나 성금은 외부에서 이화인들을 돕고자하여 전체적으로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성금을 모금하자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고 말한다. 이 장학금은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는 학생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라 했지 전교생에게 지급하겠다고 한 적은 없으며, 이 장학금은 등록금 반환과 관련이 없음을 명확히 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받는 것은 모든 학생임을 말한다.

- 학생처장이 등록금 환원이 장학금 형태로 진행된다면 모든 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 장학금은 코로나 성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이라고 답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등록금 환원 요구 시에 등록금 환원 대신 장학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들었다고 말한다.

- 학생처장이 특별장학금이라는 용어가 혼동이 되는 것 같다고 말하며, 이 장학금은 코로나 성금 모금한 것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고, 대교협에서 말한 장학금은 등록금 환원이 이루어진다면 특별 장학금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교 재정이 어려워 등록금 환원이 어려워서 모금을 해서 지급한다고 들었고, 코로나 피해는 모든 학생이 받았기 때문에 모두 지원해줘야 한다고 한 것이며, 학생처를 통해 모든 학생들에게 지원해 준다고 들었는데 공지사항 내용과 달라서 질문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 사범대학 공동대표가 모금이 5월 중순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지는 왜 벌써 나온 것인지 질의하고, 학생처장이 공지는 미리 신청을 받기 위함이고, 5월 중순에 모금액이 확정되면 지급하고자 한다고 답하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이 장학금이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나중에 남는 돈을 등록금 환원 시에 합쳐 지급하는 것인지 모호하다고 말한다.

- 학생처장이 코로나 성금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은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모두 지급할 예정임을 말한다.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알고 있기에 전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도 고민은 하고 있으나 금액과 규모를 정할 수 없고 해당 논의는 다른 대학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힘내라 이화 장학금은 코로나 성금에 대한 집행이며, 등록금 환불과 상관없음을 명확히 하다.

- 위원장이 힘내라 이화장학금과 등록금 환원을 위한 장학금 지급은 분리된 것인지 다시 확인하다.

- 학생처장이 힘내라 이화 장학금은 순수하게 동창, 교직원 등의 기부금을 받아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받은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임을 설명하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 모든 학생이 크고 작은 피해를 받았을 것이나 코로나로 가장 어려운 학생은 소득분위가 낮은 학생들이라 기본 수혜기준을 소득분위로 정했다고 답하다. 해당 장학금은 소득분위가 낮다고 모두 받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 실직, 휴폐업 등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자격이 된다고 덧붙인다.

- 위원장이 위 장학금이 등록금 환불과 분리된 것은 명확히 하고 장학금 대상자 선정 시 학생들 의견을 듣는 것이 어떠한지 제안하자 학생처장이 일단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보고, 기준 소득분위 외에도 일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게도 추가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답하다.

- 사범대학 공동대표가 기부금 모금과 등록금 환원이 구분되는 것이라면 등록금 환원 관련 논의는 학교에서 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질의하다.

- 학생처장이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으나 예산의 수입과 지출을 보고 확인해야하는 상황이기에 현재 시점에서 구체적 논의가 어렵다고 답하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인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등록금 환원에 대해서는 이미 말했듯이 우리학교는 이미 등록금 수입보다 많은 지출을 하고 있기에 말 그대로의 환원은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학교에서도 여러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하다.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개강은 안전상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진행한 것이나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강기간을 늘리고, 5월부터는 실기수업을 할 수 있게 하였고 성적입력기간도 연장하고 다음 학기에 추가 3학점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학칙도 개정 예정이라고 말한다.

- 학생처장이 이러한 과정 속에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좋으니 학생처를 통해 의견을 주면 논의해야하는 상황이 오면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하며, 지금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 없다고 덧붙인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해당 논의는 기획처가 담당부서인지 질의하고, 기획처장이 해당 논의는 교무처, 기획처, 학생처 등 여러 부서에 걸쳐 있음을 답하다. 구체적인 안과 지침이 나온 후 학생처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진행 중인 논의 안건은 교무회의에서 진행하는 것인지를 질의하고, 기획처장이 확실히 결정된 사항은 무상으로 다음 학기 추가 학점을 수강할 수 있는 것으로 학칙 개정 중에 있다고 답하다.

- 위원장이 코로나로 인해 학교가 여러 가지 학생들을 위해 배려하고, 모든 부처에서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있음을 답하다. 등록금 환원 관련하여 학생들의 의견은 충분히 알았으니 추후 구체적인 자료가 나오면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 하자고 제안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추후 자료가 나온 후에 돈이 남으면 2학기에 반환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등록금 수입에 비해 전체 지출예산은 2배 이상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측면만 보면 돈이 남지 않는다고 설명하다. 다만 학생들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학교 각 부처는 학생

들을 구제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하다.

- 사범대학 공동대표가 등록금 수입으로 봤을 때 재원 마련이 어렵다면 장학기금을 인출하여 학생들을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기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이며, 아직 그러한 방안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답하다.

- 사범대학 공동대표가 기금 인출에 관해서는 기금운용심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인지 질의하자 기획처장이 기금 인출 결정 이전에 어떻게 보상할지에 대한 논의와 방식이 결정되면 재원 조달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답하다.

- 대학원 학생회장이 온라인 강의가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대학원은 수업의 질이 상당히 중요한데 등록금도 문제지만 학교가 시행하고 있는 온라인 강의의 질을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잘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다.

- 교무처장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고, 중앙 부처에서 컨트롤하기가 어려움이 있으나 개별 대학에 다시 안내할 예정이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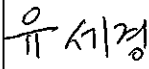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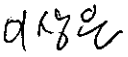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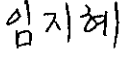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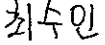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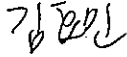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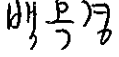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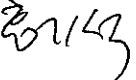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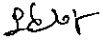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교는 등록금 수입에 비해 많은 지출을 한다고 하는데, 학교는 등록금뿐만 아니라 다른 재원의 수입을 확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임을 말하다. 또한 구체적인 자료 없이 학교의 예산이 남지 않는다는 말을 믿기 어렵다고 덧붙이다. 더불어 학생들의 등록금 환원 요구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며, 학생들이 보장받지 못한 수업의 질을 어떻게 보상할지에 대해 학교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학생들은 적립금을 쌓아놓고 안 돌려주는 것이 납득이 안 된다고 말하며, 힘내라 이화 장학금의 목적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인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자 학생처장이 맞는다고 답하다.

- 위원장이 3차 등록금심의회 폐회를 선언하다.

위의 기록이 사실임을 확인함

2020년 4월 24일

확 인	직 위	성 명	서 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원장	강동범		위 원	유세경	
	위 원	김민서		위 원	이상은	
	위 원	김영석		위 원	임지혜	
	위 원	김우정		위 원	최수인	
	위 원	김효민		위 원	최혜련	
	위 원	백옥경		위 원	홍기석	
	위 원	오희아				
작성 자	예 산 팀		안 예 지 